

성경관과 신학하기

빛과 생명 교회(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조동호 목사

1. 성경관

성경관은 크게 세 가지, 축자영감설, 개념영감설, 신앙고백설로 나뉜다. 축자영감설을 근본주의라 부르고, 개념영감설을 복음주의라 부르며, 신앙고백설을 진보주의라 부른다. 신학대학교들과 교단들의 성향도 대체로 이 세 가지 성경관에 따라 갈린다.

축자영감설은 성경의 한자 한자가 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된 오류가 없고(무오설) 실수가 없는(무류설)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다. 개념영감설은 성경의 한자 한자보다는 문장을 중시하며, 그 문장에 담긴 개념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된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다. 반면에 신앙고백설은 성경의 한자 한자 또는 문장보다는 문맥과 정황을 중시하며,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이들의 신앙고백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다. 신앙고백차원이란 민족, 문화(종교),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고백될 수 있는 신앙을 말한다. 이들 성경관에 따라 그리스도교 믿음(신학)과 실천의 규범(기준, 표준, 잣대)이 달라지고 믿음(신학)과 실천의 방법이 달라지며, 신학방법론도 달라진다.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그 믿음과 실천이 교단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자’(Ad Fontes) 혹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고 또 힘써 노력하고 있지만, 엄격히 말해서, 그 같은 외침과 노력이 우리만의 것은 아니다. 근본주의자 또는 복음주의자라면 누구나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과 실천이 달라지고 분열이 생기는 것은 규범(기준, 표준, 잣대)이 다르고, 신학하기 방법이 다르며, 성경해석의 원칙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침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규범과 신학방법론과 성경해석원칙의 통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첫째, 성경만을 우리의 믿음(신학)과 실천의 규범으로 삼을 것인가, 성경뿐 아니라, 전통과 교리까지도 포함시킬 것인가? 성경만을 신학하기의 유일한 자료로 삼을 것인가, 성경뿐 아니라, 과학과 이성과 삶의 정황까지 신학하기의 자료로 삼을 것인가; 둘째,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동등하게 볼 것인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가운데 어느 한쪽을 다른 쪽보다 상위에 둘 것인가; 셋째, 성경이 침묵하는 것들을 자유로 볼 것인가, 금지로 볼 것인가? 또 특정 사항을 본질로 볼 것인가, 비본질로 볼 것인가; 넷째, 특정 성구나 어휘의 뜻을 문자적으로 할 것인가, 영적으로 할 것인가가 그것들이다. 이런 문제(이슈)들에 대한 공부가 선행되고 이해가 충분히 되어야 올바른 신학하기가 되고, 성경적 교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슈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신학하기(조직신학)를 통해 세운 신학체계(교리, 신앙고백서)가 그리스도교를 위협에 빠뜨려 왔다. 편견을 가진 소수의 신학자들이 세운 신학체계가 각 교단의 울타리가 되었고, 옳고

그림의 기준(잣대)이 되었기 때문이다.

2. 신학하기

신학하기(조직신학)와 신학체계는 다르다. 조직신학은 성경연구의 한 방법이고, 신학체계는 신학하기의 결과물인 교리(신앙고백서)라고 말할 수 있다. 신학하기의 모든 노력이 신학체계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럴 의도도 대개는 갖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한 설교가가 주제설교를 쓴다든지, 어떤 특정한 교리에 대한 성경 강의록을 쓸 때에 그는 신학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신학체계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우려는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급기야는 성경보다는 인간들이 세운 불완전한 체계에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수용할 수 없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해왔다. 특히 국가종교(국교)와 시의회종교(제네바, 취리히 등의 도시종교)인 경우와 같이 신앙의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더욱 그 폐해가 컸다.

첫째, 성경만을 우리의 믿음(신학)과 실천의 규범으로 삼을 것인가, 성경뿐 아니라, 전통과 교리까지도 포함시킬 것인가? 성경만을 신학하기의 유일한 자료로 삼을 것인가, 성경뿐 아니라, 과학과 이성과 삶의 정황까지 신학하기의 자료로 삼을 것인가?

“성경만을 믿음(신학)과 실천의 규범으로 삼아야한다”는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의 주요 외침들 곧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한 가지였다. ‘오직 성경’ (Sola Scriptura)이 그것인데, 로마가톨릭교회가 교리와 전통을 성경에 준하는 권위를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톨릭교회에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톨릭교회가 1962-65년에 개최된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펼쳐온 많은 긍정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성모함숭과 성인들에게 바치는 기도와 같은 주요 전통들을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유대교가 탈무드(구전 미슈나와 그 해석)를 구약성경과 거의 동급의 규범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 유대교 정통주의에 상식 밖의 규례들(Gezairoth, 계명들의 율타리법들)과 관행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모르몬교회는 성경과 모르몬경을 동일하게 취급한다. 모르몬교회에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크리스천사이언스도 과학과 건강을 성경 못지않게 중요하게 취급한다. 이들 유대교, 로마가톨릭교회, 모르몬교회와 크리스천 사이언스뿐 아니라, 심지어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건전한 그리스도교들에서조차 그들의 교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억누를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갖는다. 감리교회는 장정이 있고, 장로교회에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가 있으며, 루터교회에는 아우크스부르크신앙고백서가 있고, 침례교회에는 필라델피아신앙고백서가 있다. 그들 교단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한 누구도 감히 이들 장정과 신앙고백서들의 내용을 반박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근본주의와 복음주의에서는 성경만을 신학하기의 유일한 자료로 삼는다. 반면에 진보주의는 성경뿐 아니라, 과학과 이성과 삶의 정황들까지 신학하기의 주된 자료로 삼는다.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유약기)은 오직 성경만을 고집한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유, 무약기)에 교리가 없거나 신학체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실상은 없지 않다. 있지만 그것들을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판하는 규범(기준, 잣대)으로 삼지 않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들 안에는 많은 대학과 대학교들이 있고, 수많은 학자들이 대를 이어 학생들을 가르쳐왔으며, 또 그들이 신학하기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책들을 출판해왔지만,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통제하는 규범(기준, 잣대)으로 삼지 않아왔다. 물론 그리스도의 교회들 안에도 컨센서스(일치)와 전통이란 것이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컨센서스와 전통도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또는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판단하는 잣대로 삼지 못한다. 다만 의견충돌과 견해차이가 있을 뿐이다. 물론 그것들이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의견충돌과 견해차이로 인한 분열은 교제의 단절일 뿐이었지 그 어떤 형태로도 징계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에는 징계를 내릴 주체(총회)가 없는 협의체이기 때문이다.

둘째,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동등하게 볼 것인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가운데 어느 한쪽을 다른 쪽보다 상위에 둘 것인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더라도 이 두 성경이 서로 동등한가, 아니면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우월하거나 상위인가라는 문제는 신학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논제이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우위권 혹은 상위권에 관한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유대교인들에게 구약성경은 자기 민족의 출범과 발전 및 쇠퇴와 멸망에 관한 글이기 때문에 100퍼센트 문자적으로 이해할 뿐 아니라, 100퍼센트 문자적으로 실천한다. 참고로 유대교는 교리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는 민족종교이다. 그래서 신앙고백서가 없다. 교리라고 해봐야 세파르딕 랍비와 의사였던 마이모니데스(Rambam, Maimonides, AD 1135-1204)가 정리한 매우 짧은 열 세 개의 믿음의 원리뿐이다. 그 가운데 1-4까지가 (1)하나님은 존재하신다, (2)하나님은 한분이시고 유일하시다, (3)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다, (4)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다. 토라(모세오경)에 실린 613개의 계명들은 첫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고 이스라엘이 출범될 때 체결된 언약의 내용이자, 헌법이며, 그것들의 준수여부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다고 믿기에 100퍼센트 문자적으로 지킨다. 문자적인 이해 말고는 그 어떤 해석, 곧 신약성경 저자들이 구약성경을 해석한 방식인 영적, 구속사적, 모형(유형, 표징)적, 예표적 해석이란 것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유대교인들은 신약성경을 허구의 책이라 생각한다.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이며, 그를 믿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교 신학자들 가운데에도 구약성경이 신약성경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네덜란드의 개혁신학자 아놀드 A. 판 룰러(Arnold A. von Ruler)는 “구약은 하나님의 본래적이며 본질적이며 정경적인(규범적인) 말씀이며, 신약은 구약의 해석학적 부록이다” 고 하였고,¹⁾ 또 다른 네덜란드의 개혁신학자 코넬리스 H. 미스코테(Kornelis H. Miskotte)는 “구약을 ‘그 이름’²⁾에 대한 독자적인 증거로, 신약을 구약의 기독교적 후속물로, 탈무드를 구약의 유대교적 후속물로 본다” 고 하였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러가 “구약은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의 합법화로 기독교회에 필요하다” 고 한 것이나 “구약이 기독교회에 필요한 것은 복음의 해석을 위해서이다”⁴⁾ 고 한 것은 옳은 주장이다. 이밖에도 제임스 바아(James Barr)와 휠러로빈슨(H. Wheeler Robinson)이 구약의 신학적 역사적 우위성을 주장하였다.⁵⁾ 이 같은 주장은 그리스도교의 유대교화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써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다. (1)가톨릭교회의 제사(봉헌, 미사)와 사제(제사장) 개념, (2)안식교(재림론자 교회)의 제칠 안식일(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준수 주장, (3)예수님의 신성과 성령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여호와증인의 단일신론 주장, (4)물몬교의 일부다처제 주장, (5)구약성경의 예언을 100퍼센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세대주의(시대구분론)자들의 해석법, (6)유대인 그리스도인들(Messianic Jews)의 세대주의 성경해석법, (7)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주장한 유대인 에비온파(Ebionites), (8)피 뿌림을 모방한 약식세례와 할례를 모방한 유아세례가 그리스도교의 유대교화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교의 유대교화를 꾀하는 자들은 “다른 복음”(고후 11:4, 갈 1:6-9)을 전하는 자들,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자들(갈 1:7),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빌 3:18), “저주를 받을” 자들이었다(갈 1:8-9).

반면에 신약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성경이고, 구약은 그 특성상 비기독교적인 것이므로 신약이 구약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루돌프 볼트만(Rudolf Bultmann)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구약의 의의’(The Significance of the Old Testament for the Christian Faith, 1933a: 21)라는 논문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 구약은 더 이상 계시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그것(구약)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여전히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다” 고 말하였다.⁶⁾ 또 다른 신학자 프리드리히 바움게르텔(Friedrich Baumgärtel)은 <약속: 복음적인 구약 이해에 답하여>(Verheissung: Zur Frage des evangelischen Verständnisses des Alten Testaments: 1952)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리스도 안

1) D. L. Baker, *Two Testaments on Bible: A Study of Some Modern Solutions to the Theological Problem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ld and New Testaments*(Leicester: IVP, 1976) <구속사적 성경해석학> 오광만 옮김(도서출판 엠마오, 1989), 107.

2) 여기서 “그 이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호칭할 때 쓰는 ‘하셈’(Ha-Shem)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3) D. L. Baker, *op. cit.*, 132.

4) D. L. Baker, *op. cit.*, 107-08.

5) D. L. Baker, *op. cit.*, 133-136.

6) D. L. Baker, *op. cit.*, 141-42.

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에⁷⁾ 근거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에는 구약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고, 구약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⁸⁾ 이밖에도 임마누엘 허쉬(Emanuel Hirsch)와 프란츠 헷세(Franz Hesse)가 신약의 신학적 역사적 우위성을 주장하였다.⁹⁾ 총신대학교 전 부총장 정훈택 교수(2013년 소천)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신약성경을 ...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책도 신약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약성경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경전이라고 해야 한다. 구약성경은 신약성경과 함께 읽힐 때에만 기독교 경전의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는 구약성경을 읽고 사용하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의 사도들이 확신한 대로 예수님과 관련성 속에서 읽는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구약성경을 기독교적으로 읽고 사용하는 것이 구약성경의 진정한 의미라고 믿는다.... 구약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예표를 담고 있는 책들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역시 기독교의 경전이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약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구약성경이 탄생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구약성경을 신약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읽는다면, 그는 구약성경을 오해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구약성경을 기독교의 경전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¹⁰⁾

예수님께 배워서 전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담긴 신약성경으로 돌아가 교회의 본래성과 순수성과 그 능력을 회복하자고 주창한, 당시 장로교 목사였던,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은 1809년 9월 7일 발표한 <선언과 제언>(Declaration and Address)¹¹⁾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성경 그리스도교의 사도들의 권위에 의해서 분명히 명령된 것 즉 명백한 용어나 승인된 전례(前例)”가 아닌 것들로써는 결코 “믿음의 조항”이나 “교제의 시금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고(제3명제), 신구약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완전하고 통전적인 계시에서 서로 분리될 수 없지만, “직접적이고 적절하게 그들의 즉각적인 목적에 속하는 것에 관해서는 신약성경이 신약성경교회의 예배와 징계와 치리를 정한 완전한 헌법이고, 교회 구성원들의 특별한 의무를 정한 완전한 규율인 것은, 마치 구약성경이 구약성경교회의 예배와 징계와 치리를 정한 것과 같으며, 구약성도들의 특별한 의무를 정한 것과 같다”(제4명제)고 했으며, “어떠한 인위적인 권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새로운 명령과 예전을 교회에 부과할 권한을 갖지

7) D. L. Baker, *op. cit.*, 172.

8) D. L. Baker, *op. cit.*, 176.

9) D. L. Baker, *op. cit.*, 180-81.

10) 정훈택, <신약개론>(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8), 14-15.

11) Thomas Campbell and Thomas Acheson, *Declaration and Address of the Christian Association*(Washington, Pa: Brown & Sample, 1809), reprinted by Lincoln Christian College Press, Lincoln, Illinois in 1983.

아니한다. 신약성경이외에 어떠한 것도 믿음 혹은 교회예배에 유입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교제의 시금석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제5명제)고 하였고, “신학적으로 추론된 어떠한 해석이나 진리도 교회의 신앙고백의 위치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제6명제)고 하였다. 또 토마스 캠벨은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 고 하였는데,¹²⁾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으로써 신학적 추론을 요구하는 것들이다. 캠벨은 이 침묵 부분에 대해서 “법규를 제정하여 간섭할 권한을 갖지 아니하며”(제5명제), “분란이나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제13명제)고 하였다.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은 만 28세 때인 1816년 9월 1일 레드스톤 침례교회 협의회(Redstone Baptist Association) 집회에서 ‘율법에 관한 설교’¹³⁾란 제목으로 설교하였는데, 당시 침례교 목사였던, 알렉산더 캠벨은 이 설교에서 “율법은 유대나라에 주어졌고, 다른 아무 나라에도 주어지지 않았다” 고 하였고,¹⁴⁾ “율법은 그 자체로 약하거나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부분적으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였다. 다른 부분들에서는 기초적이고 그림자적인 다가올 선한 것들의 상징들이었다. 만일 율법이 결점을 갖지 않았다면, 복음이 설자리가 없었을 것이다” 고 하였으며.¹⁵⁾ 또 “이제까지의 내용으로 봐서 율법과 복음 즉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essential difference)가 있다.” 고 하였다.¹⁶⁾

또 미국 오하이오 주 캔턴(Canton) 소재 대형 그리스도의 교회(유약기) 목회자였던 P. H. 웰시머(Welshimer, 1873-1957)는 그의 소책자 <신약성경교회에 관한 사실들>에서 “우리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두가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신약성경은 독보적인 권위의 책이다. 비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것과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것은 신약성경에 쓰여 있다. 옛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골 2:14). 구약은 유대인을, 신약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책이다. 구약에 있는 많은 계명들이 지금은 신약에 들어있다. 그러나 이 계명들이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그 계명들이 구약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신약에서 다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구약은 감춰진 신약이고, 신약은 드러난 구약이다(The Old Testament is the New concealed; the New is the Old revealed). 우리에게 구약성경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신약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함이다(We need the Old to help us understand the New)”¹⁷⁾고 강조하였다.

12) Morris Womack, *Thirteen Lessons on Restoration History*(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92), 72, 152.

13) Alexander Campbell, *The Millennial Harbinger*, Series III, Vol. III(September, 1846), 493f.

14) Lester G. McAllister, ed., *An Alexander Campbell Reader*(St. Louis, Missouri: CBP Press, 1988), 39.

15) *Ibid.*, 40.

16) *Ibid.*, 41.

17) P. H. Welshimer, *Facts Concerning the New Testament Church*(Cincinnati, Ohio: The Standard Publishing Company), 6.

이는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한 원칙, 곧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약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했던 방식대로 해석(신학하기)하지 아니하면 저주의 대상인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구약성경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라고 말한 것은 구약성경을 신약성경의 모형과 그림자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할 것을 의미한 것이다. 이런 해석방법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해석방법이었고, 신약성경 저자들의 해석방법이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배전통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유대교의 진정한 경전은 토라(모세오경)와 그 속에 담긴 613개의 계명들이다. 따라서 구약성경의 역사가들과 예언자들은 이 토라 곧 계약전승을 민족의 흥망성쇠에 관한 역사성찰의 전거(典據, 근거, 잣대)로 삼았다.¹⁸⁾ 같은 맥락에서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관한 구전전승과 구약성경을, 바울은 사도전승(안디옥 교회의 전통 포함)과 구약성경을¹⁹⁾, 히브리서와 계시록의 저자는 구약성경을 전거로 삼았다.²⁰⁾ 그리고 신구약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계시가 없지 않았지만, 전거들의 해석자들이었다. 이들의 해석에 성령님께서 직간접으로 관여하신 것이 영감이다.

셋째, 성경이 침묵하는 것들을 자유로 볼 것인가, 금지로 볼 것인가? 또 특정 사항을 본질로 볼 것인가, 비본질로 볼 것인가?

본질이 아닌 것들(adiaphora) 곧 성경이 명확하게 명령하거나 금하지 않은 곧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견해는 세 가지로 나뉘어 왔다.

1)북아프리카의 신학자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us, 160-223)와 그리스도의 교회(무악기)의 근본주의 신학자 데이비드 립스콤(David Lipscomb, 1831-1917)과 같은 인물들은 성경이 명확하게 명령하거나 금하지 않은 중립적인 것들과 교회가 제정한 인위적인 전통들 모두를 금지로 보아 철저히 배격하였다.

2)토마스 캠벨(Campbell, Thomas, 1763-1854)과 그리스도의 교회(유악기)의 신학자 아이작 에레트(Errett, Isaac 1820-1888)는 성경이 명확하게 명령하거나 금하지 않은 중립적인 것들을 ‘사랑의 법’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 것으로 보았지만, 교회가 제정한 인위적인 전통들은 배격하였다. 비본질적인 것들은 상황, 동기, 목적, 신앙, 사랑의 법에 따라서 허용이 될 수도 있고 금지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울의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18) 장일선, <구약신학의 주제>(대한기독교서회, 1991), 259; <이스라엘 포로기 신학>(대한기독교서회, 1990), 62-63.

19) 크리스천 베커, <사도 바울> 장상 역(한국신학연구소, 1991), 147-175.

20) 조동호, <요한계시록의 새로운 이해와 말씀: 풍랑을 잔잔케 하실 예수>(도서출판 가나다, 1998), 70-72.

해서 더 잘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전 8:8-9).

3)루터교의 1577년 <콘코드 신조>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는 교회가 제정한 인위적인 전통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하지도 금하지도 않은” 허용의 범주로 보았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교회(제자들)의 신학자들인 개리슨(J. H. Garrison, 1842-1931)과 애임즈(Edward Scribner Ames, 1870-1958)와 같은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오랜 기간 본질로 여겨왔던 침례와 같은 것들까지도 비본질의 범주에 넣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 무악기)의 경우, 일부 교회들이 성경이 명확하게 명령하거나 금하지 않은 곧 선택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것들까지 본질로 간주하여 배격함으로써 그렇지 아니한 교회들과 1906년에 갈라섰고, 성경이 명확하게 명령하거나 금하지 않은 중립적인 것들을 ‘사랑의 법’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 것으로 보았던 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유악기)은 성경이 명확하게 명령하거나 금하는 것들조차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하는 교회들(Christian Church and Disciples of Christ, 제자들)로부터 갈라섬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1968년에는 세 파로 완전히 굳어졌다.

우리에게는 “본질에 일치하고, 비본질에 자유하며, 매사에 사랑으로 하자”는 좋은 슬로건이 있지만, 무엇이 또는 어디까지가 본질이고, 본질이 아닌가라는 논쟁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왔다. 예를 들어, 침례가 구원에 본질인가 아닌가, 성경이 침묵한 것들과 명령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것들을 신앙과 실천의 본질로 보아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비본질로 보아 허용할 것인가와 같은 논쟁이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토마스 캠벨은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²¹⁾ 슬로건의 침묵 부분에 대해서 “법규를 제정하여 간섭할 권한을 갖지 아니하며”(제5명제), “분란이나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제13명제)고 하였다. 성경, 특히 신약성경이 말한 것은 본질적인 것이고, 침묵한 것은 비본질적인 것으로써 신학적 추론을 요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열거되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대체로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성경이 침묵한 것, 특히 신약성경이 침묵한 것을 금지명령인 본질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신약성경에 회중예배 때 악기를 사용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회중예배 때 악기사용을 금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예배 시에 악기를 사용하는 전통은 서방교회 즉 가톨릭교회 전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아퀴나스(1225-74)를 비롯하여 다수의 신학자들은 미사 때 오르간 사용에 반대하였다. 동방교회의 경우 희랍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 모두에서 예배 시에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서 3장에 언급된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에는 악기와 음률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에 산재한 북미주 개혁신의 장로교 교단과 스코틀랜드의 일부 개혁신교회들, 특히 무

21) Morris Womack, *Thirteen Lessons on Restoration History*, 72, 152.

악기과였던 츠빙글리, 칼뱅(칼빈), 낙스 전통의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서>에 의하면, 예배용 찬송으로 시편에 고유한 운율(chant, 영창 곧 시편의 글귀를 단조롭게 읊는 것)을 사용하여 불렀고, 악기의 사용은 금하였다.

1800년대 중후반 미국교회들에서 예배 때 오르간(Reed Organ, 풍금)을 사용해도 좋은가라는 논쟁이 불거졌을 때 보수성향이 강한 미국 남부지역들, 특히 텍사스 주와 테네시 주 등에 1만개 이상의 크고 작은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 무악기)에서는 공적 예배에서 악기를 사용하지 않던 개혁주의(장로교) 노선을 그대로 유지한 반면에 장로교회들, 침례교회들, 감리교회들,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 유악기)에서는 오르간 사용을 받아들였다.

바젤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마친 츠빙글리는 1506년 20세에 가톨릭교회 사제가 되었고, 1518년까지 교구 사제를 지냈다. 이후 츠빙글리는 개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성당의 아이콘들과 사제복을 없앴고, 오르간을 성당 마당으로 끌어내 부숴버렸다. 츠빙글리는 에베소서 5장 19-20절의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를 이어지는 구절,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의 뜻으로 해석하였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개혁주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고, 재세례파도 동일한 견해를 견지하였다. 예를 들어 츠빙글리의 후계자인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 1504-1575)는 “교회에 있는 오르간은 특별히 오래된 전통이 아니다. 그들이 사도시대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대성당에 있는 오르간들은 올해 1517[?1527]년 12월 9일에 모두 부수어졌다. 이후로 누구도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이나 오르간 연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였다.²²⁾

성희찬 목사는 ‘공예배에서 악기 사용,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글에서 칼뱅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기 위해 탭버린이나 여러 악기를 사용한 것은 참된 예배의 한 요소로서 그림자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예배 시의 악기는 오직 구약시대 즉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봉사하는 시대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신약시대의 예배에서 이러한 음악 악기를 다시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나타난 빛을 다시 어둡게 하고 여기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이라고 하였다.”고 했다.²³⁾

예루살렘 멸망이후 유대교 특히 정통파에서는 안식일에 악기 사용을 금하고 있다. 유대교는 성전파괴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 성전파괴이전에는 시편에 나타난 대로 예배시 악기사용이 허용되었으나 성전파괴이후 회당예배의 발전과 더불어 악기사용이 금지되었다. 유대교 정통파에서는 아직도 예배 시에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악기사용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악기의 음을 맞춘다든지(tune) 하는 것은 안식일법에서 금하는 창조행위

22) C. 레오나르드 알렌, 리처드 T. 휴스, <환원 운동의 뿌리> 백종구, 서요한 공역(서울: 쿤란출판사, 2010), 51, 55.

23) 성희찬, ‘공예배에서 악기 사용, 어떻게 해야 하나?’ <개혁정론> <http://reformedjr.com/board02/1057>, [입력: 2016.05.30. 08:40].

(Melachot)에 해당된다.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창조행위를 39가지 범주로 설명한다.

성경이 침묵하는 것, 성경이 명령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것을 믿음(신학)과 실천의 본질로 보아 금지할 것이냐, 아니면 비 본질로 보아 허용할 것이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논쟁이슈였을 뿐 아니라, 분열의 원인이기도 했다. 그 몇 가지 사례들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데이비드 립스콧과 <복음 주창자>(Gospel Advocate)는 성경이 침묵하는 것을 본질로 보고 금지를 주장하였고, 아이작 에레트(Isaac Errett)와 <그리스도인 표준>(Christian Standard)은 비본질로 보고 허용(자유)을 주장하였으며, 에레트의 허용의 범위를 개리슨(J. H. Garrison)과 <그리스도인-복음전도자>(Christian-Evangelist)는 약식세례에까지 확대시켰다. 벤자민 프랭클린, 톨버트 패닝, 데이비드 립스콧, 모세스 라드, 다니엘 서머 등으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 무악기)은 예배 때 악기 사용, 선교회, 주일학교 등을 본질로 보아 엄격하게 금지한 반면,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 유악기파가 분열되기 전)은 비본질로 보아 허용하였다. 여기에 노예제도문제와 남북의 문화사회적 갈등까지 더해져 1906년에 스톤-캠벨운동은 그리스도의 교회들(무악기)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유악기)로 갈라섰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시 진보와 보수로 나뉘었다. 1968년에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를 위한 가(假)계획’을 채택한 진보진영은 비본질의 범위를 느슨하게 확대시켜 성경비평, 열린 회원제(약식세례자를 교인으로 받는 제도), 에큐메니즘, 교단재구성 등의 좌파적인 행보로 환원정신을 버리고 연합에 치중하였고, 1920년대 말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진보적인 행보에 환멸을 느껴 그들로부터 독립한 보수주의 중도파들은 비본질의 범위를 엄격하게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유악기 독립 교회들, 한국에서의 협의회와 총회)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워나갔다.

성경이 침묵하는 것들을 금지로 보는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 무악기)의 입장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일리노이즈 주, 셸비(Shelby) 카운티, 샌드 크리크에서 1889년 8월 18일 주일 오후에 선포된 ‘제언과 선언’ (Sand Creek “Address and Declaration”)이다. 이 성명서는 <옥토그래픽 리뷰>(Octographic Review)의 편집자이자 보수 중에 보수였던 다니엘 서머(Daniel Sommer)의 주도아래 샌드 크리크 교회 장로들이 참여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신약성경이 침묵하는 신제도들의 도입을 지지하는 형제들로부터 분리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 같은 신제도들에는 성가대, 선교회, 유급지역교회설교자, 주일헌금 이외의 기금모금 등이었다. 이날 주장사로 나선 다니엘 서머는 교회가 수행하는 사역에 편의를 제공하는 인위적인 이름(조직)들을 그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만일 신제도들의 수용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형제로 간주할 수도 없고 간주하지도 않을 것이다.” 고 선언하였다. 토마스 캠벨이 연합을 주창하며 1809년 9월 7일 발표한 <선언과 제언>(Declaration and Address)에 상반된 선언이었다.

성경이 침묵하는 것들을 금지로 보는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 무악기)의 입장을 교리적인 면에서 보여준 사례로는 아이작 에레트와 모세스 라드에 게서 나타났다. 1862년에 아이작 에레트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믿음과 실천의 개요>(A Synopsis of the Faith and Practice of the Church of Christ)라는 소논문을 발표하였다. 1870년에는 <우리의 입장>(Our Position)으로 제목을 바꿔 출판하였다. 이것은 스톤-캠벨 운동의 주요 신앙들을 10개 항목으로 기술하고, 에레트가 당시 설교했던 디트로이트의 제퍼슨 애비뉴(Jefferson Avenue)와 보빈 스트리트(Beaubien Street) 교회의 회칙을 포함시킨 것이었다. 부임한 회중에게 환원운동의 주요 교리를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써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권위; 신약성경 용어로 진술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위대한 사실들”은 진정한 그리스도교종교의 본질이 됨; 침례의 전제조건으로 믿음과 회개; 죄 사함을 위한 침례; 침수에 의한 세례,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요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에레트는 자신이 쓴 <믿음의 개요>가 신조가 아니며, 단지 중요한 종교의식에서 우리의 신앙과 목적을 선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신조가 아니라는 분명한 천명에도 불구하고, 몇몇 영향력을 가진 편집인들은 에레트와 그의 <믿음의 개요>를 공격하였다. 1863년 9월, 모세스 라드(Moses Lard)는 “40년 동안 분열적이고 악한 신조들의 성향에 반대하여 일해 왔던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야기하는 에레트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계간지>(Quarterly)에 그 논문 전체를 다시 실었다. 라드는 그것은 표지 없는 신조, 즉 “풀밭 속에 있는 진짜 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에레트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대부분 무시하였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교회들(무악기)이 신학체계(교리 혹은 신앙고백서)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또 그리스도의 교회들(무악기)과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유악기)에 교리가 없다거나 신학체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생기는 이유이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노예제도문제와 남북의 문화사회적 갈등 등)이 결합되어 결국 1906년 그리스도의 교회들(무악기)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유악기)로부터 갈라섰다. 그리고 1900년대 전반기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유악기 독립교회들, 한국에서의 협의회와 총회)은 진보성향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서 삼삼오오 탈퇴하여 독립교회들로 자신들의 보수정체성을 세워나갔다.

넷째, 특정 성구나 어휘의 뜻풀이를 문자적으로 할 것인가, 영적으로 할 것인가?

그리스도교(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와 신약성경 저자들의 구약성경과 사도전승의 해석에서 비롯되었다. 신약성경의 일부, 특히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구약성경에 대한 해석의 말씀이고, 다른 일부는 초기 교회들과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사역자들의 필요를 따라 권면한 말씀들이다. 그것이 신약성경에 구약성경해석에 관한 언급들이 담겨있는 이유이다. 신약성경에는 구약성경을 해석한 사례들이 있다(눅 24:27, 32; 행 17:3, 18:26).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대제사장으로 설명해야할 경우 구약성경예언

의 해석은 불가피하다. 복음서들이나 히브리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구약성경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들도 있고(히 5:11; 벡후 3:16), 구약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벡후 1:20), 구약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경고하였다(벡후 3:16).

신약성경해석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이다. 그것들은 구조주의, 모형(예표)론, 종말론 및 영적 해석이다. 구조주의란 유대교, 율법,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교훈으로 교회를 허문 영지주의 성향을 띤 유대인 에비온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의 병든 상태, 부족한 상태, 어둠과 혼돈과 죽음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들춰냄으로써 그리스도교와 복음과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상태, 온전한 상태, 빛과 질서와 생명의 상태를 부각시킨 것을 말한다. 옛 언약의 약점인 어둠과 혼돈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병든 상태와 부족한 상태를 들춰냄으로써 새 언약의 장점인 빛과 질서와 생명을 주는 건강한 상태와 온전한 상태를 강조한 것을 말한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교와 유대교가 상반된 대립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신약성경은 신념체계이자 하나님의 뜻의 실체인 그리스도교 복음을 독자들인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또 유대교인들의 패러다임(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유대의 정치종교지도자들과 그들의 613개의 계명들의 해석과 장로들의 전통(Gezeirot)을 건강한 상태인 그리스도교 복음에 대립되는 병든 상태로 설명한다. 어둠 속에서 빛이 밝게 빛나듯이 그리스도교 복음의 건강한 상태가 유대교의 병든 상태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만든다(예: 예수님과 유대종교지도자들과의 대립, 바울과 유대인 에비온파와의 대립).

모형(예표)론은 구약성경과 율법과 모세 등을 그림자와 모형과 예표로, 신약성경과 복음과 예수님을 실체와 원형으로, 구약성경과 율법을 몽학교사(갈 3:14-25)로, 신약성경과 복음을 기업을 무를 자인 주인의 아들로 해석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몽학교사는 주인의 노예로서 주인의 아들을 교사들에게 데려다가 주고 교육을 받는 동안 감시하며, 교육이 끝나면 집에 안전하게 데려오는 보호자였다. 그러나 주인의 아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무르면 주인의 노예들(몽학교사 포함)은 자동으로 아들의 소유 곧 새 주인인 아들을 섬기는 노예들이 되었다. 이로써 우리는 구약성경이 신약성경을 섬기는 종의 신분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이다. 고대의 지중해연안세계는 다신(多神) 세계였다. 해와 달 심지어 동식물들을 신으로 믿었던 시대였다. 그 같은 시대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과 맺은 언약율법들을 지킨 것은 당대 최고의 계시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비하면 그 계시의 밝기가 달빛 정도에 불과했다. 그에 비하여 신약성경과 복음의 계시의 밝기는 햇빛 정도였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이나 율법 또는 유대교를 나쁘다거나 악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과거 한 때 최상이었던 것과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비교한다. 달빛은 밤에 유용하지만, 햇빛이 있는 낮에는 쓸모가 없는 것처럼, 먹을 것이 귀했을 때에는 풀

죽도 고마운 음식이었지만, 먹을 것이 풍성한 지금은 더 이상 먹지 않는 것처럼, 뼈나 풀더 폰도 한 때 유용한 기기였지만, 지금은 훨씬 더 좋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율법과 복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그와 같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

히브리서 저자가 즐겨 쓴 “더 좋은 것”이란 말은 ‘그냥 좋은 것’과 비교해서 ‘더욱 좋은 것’이란 뜻이다. 저자의 이 비교는 총체적으로 ‘더 좋다’가 아니라 최소한 ‘구원에 속한 것에서 더 좋다’는 뜻이다. 따라서 신약의 것들이 구원에 속한 것에서 한층 더 큰 보물로 새로 부각된 것이라면, 구약의 것들은 구원에 속한 것에서 이전시대에 일시적으로 좋은 것에 불과하였다. 여기서 구약의 것들이 좋은 것이었다는 뜻은 흠이 없거나 완전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것들에 비교해서 탁월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전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나타나면 이전에 좋았던 것이라도 더 이상 이전 것을 고집하지 않게 되듯이 새 것으로 인해서 옛 것은 자연스럽게 폐기되고 만다(히 7:18, 10:9).

신약성경의 종말론은 다분히 후천년설적이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다. 그리스도교종말론의 특징은 ‘이미’와 ‘아직 아닌’에 있는데, ‘이미’는 실현된 종말론(realized eschatology)을 말하고, ‘아직 아닌’은 미래 종말론(futuristic eschatology)을 말한다. 그 둘 사이에 교회시대가 있다. 그것은 마치 홍해를 건넌 후 곧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고 약속의 가나안땅에 이르기까지 40년 광야시대동안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은 것과 같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교회시대를 살다가 천국에 이르는 것과 같다.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님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영적구원 혹은 영혼부활이라 말하고, 궁극적인 구원을 육체구원 혹은 육체부활이라 말한다. 광야시대가 그랬듯이 교회시대는 환난(십자가를 지는)시대이기는 하나 구름기둥의 실체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것이기에 후천년설적인 것이다. 후천년설은 교회시대인 현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입장으로써 그 천년왕국이 원추형처럼 점진적으로 성취되어 주의 재림 때에 완성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구약성경이 100퍼센트 문자적인 말씀이라면, 신약성경은 대체로 영적인 말씀이다. 신약성경의 영적해석에 대해서 홀리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 교수를 역임했던 조지 E. 라드 박사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설명하는 글에서²⁴⁾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을 어떻게 인용하고 해석하였는지를 설명하면서 신약성경 저자들이 구약성경을 해석할 때 자주 구약성경의 문맥과 다른 의미로 해석하였고, 자주 문자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것이 신학하기에서 구약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문제 삼는 이유이다. 구약성경의 문자적 해석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겼고 여전히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반면에 유대교 랍비들은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구약성경을 심각하게 왜곡한 허

24) Robert G. Clouse, ed., *The Meaning of the Millennium: Four Views*(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77), 17-40.

구의 책이라며 입에 거품을 문다.

나오는 말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은 처음부터 정통과 이단을 식별하고, 신약성경 27권을 정경으로 결정한 잣대였다. 이것이 신약성경 저자들의 해석방법과 원칙이 성경해석과 신학하기의 표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표준이 간과되어왔다. 토마스 캠벨이 <선언과 제언>에서 밝힌 대로, 신약성경이 그리스도교의 예배와 징계와 치리를 정한 완전한 헌법이고, 교회 구성원들의 특별한 의무를 정한 완전한 규율이다. 알렉산더 캠벨이 ‘율법에 관한 설교’에서 밝힌 대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P. H. 웰시머가 <신약성경교회에 관한 사실들>에서 지적한 대로, 비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것과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것은 신약성경에 쓰여 있다. 구약은 감춰진 신약이고, 신약은 드러난 구약이다. 우리에게 구약성경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신약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함이다. 총신대학교의 정훈택 교수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교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은 신약성경이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포함하고 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약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구약성경이 탄생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제한하고 있다. 신학하기는 이 표준에서 이뤄져야 한다.